■ 아래로부터 총파업!
■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 노동악법 철폐!
■ 노동해방 쟁취!

(가칭) 총파업 승리와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경기 노동자 투쟁단

이메일 : strike2012@jinbo.net ‖ 카페 : cafe.daum.net/strike2012 ‖ 페이스북 : strike2012fb@gmail.com ‖ 연락처 : 이선자(016-762-3319)

총파업? 한다!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행동!

▲ 16일(토) 쌍용차 대회에 등장한 '총파업' 깃발. 총파업 투쟁의 깃발은 이미 올랐다. 필요한 건 투쟁의 확대와 적극적인 행동!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힘을 한 데 모아 총파업으로 달려가자!

6/28(목) 가자, 여의도로! 가자, 경고파업으로!

6/28(목) 민주노총 경고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2시부터 산별로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5시에 여의도로 집결하여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총파업의 불씨들

– 쌍용차 투쟁의 확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확대!

현 시기 한국 노동자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16일(토) 대회에도 2,00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 1박 2일의 투쟁을 전개했다. 서울의 도심을 헤집고 다니며, 정리해고 철폐의 기운을 높였다. 그리고 다음 달 7/7(토)부터 7/14(토)까지 쌍용차 동지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모아낼 것이다. 총파업을 선동하며, 이번에야말로 노동자의 한을 풀자고 호소할 것이다. 동지들의 호소에 가슴으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 지칠 줄 모르는 투쟁사업장 동지들

어디 쌍용차 투쟁 뿐인가? 전국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지칠 줄 모르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가 똑같이 정리해고 철폐 요구를 하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동지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순회투쟁을 전개 중이고, 포레시아 동지들 역시 경기 지역에서 가장 앞장 서 투쟁하며 노동자 단결 투쟁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시그네틱스 동지들 역시 2번째 해고에 맞서 투쟁 중이다. 재능 동지들은 5년 가까운 투쟁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사회화시켰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선봉이 되었다. 한국3M 동지들처럼 노조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이 한두 곳가 아니고, 유성 동지들은 "밤에는 잠좀 자자! 주간2교대 쟁취'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지키고 있다. 이 외에도 코오롱, 콜트콜텍, 협진여객,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홍대 시설노조, 파카한일유압 등 셀 수 없는 투쟁사업장들이 있다. 이 동지들의 투쟁은 하나 하나 총파업 투쟁의 불씨이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총파업 투쟁의 선동부대가 되어야 하고, 현장 동지들은 즉각 가까운 투쟁사업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 건설/화물 노동자, 총파업 예열 중!

6/28 건설/화물 노동자 15,000여명이 서울로 올라온다. 동지들은 핵심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그리고 임금체불 근절과 표준계약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6/28 투쟁은 건설/화물 노동자 투쟁에 있어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지들의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은 응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몇몇 산별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간부들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모든 산별, 모든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짜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 식당도, 화장실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 흙밥을 먹으며 노동하는 건설 노동자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화물 노동자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걸고 있다. 그렇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총파업이 필요하다!

– 공무원 노동자 3000여명, 총회 투쟁 진행!

– 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공동투쟁 돌입!

공무원 노동자들도 16일(토) 3,000여명이 모여 총회 투쟁을 전개하고, 총파업 투쟁에 적극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18일(월)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가 공동투쟁에 돌입하여 6/28(목) 경고파업 때까지 조직을 확대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은 들썩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행동이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6/28(토) 경고파업을 비롯,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총파업 투쟁단 출범식 및 쌍용차 함께 걷자

6/16 투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쌍용차 '함께 걷자' 행진

6/16(토) 오후 2시, 쌍용차 '함께 걷자' 행진이 여의도 공원을 출발하여 마포대교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몸에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고 쓰인 몸벽보를 붙이고 있었다. 경찰은 행진이 여의도 공원을 출발할 때부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는 정리해고/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행진은 폴리스 라인을 뚫고 마포대교로 향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외침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행진은 미리부터 차벽으로 막혀 있던 마포대교 앞까지 계속됐다. 희망버스 투쟁의 계기였던 김진숙 동지가 발언을 통해 투쟁으로 정리해고/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하였고, 총파업 투쟁단은 가장 앞장서 행진하며 총파업 투쟁이 필요함을,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만 정리해고/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후 행진 대오는 지하철을 통해 공덕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거리로 진출했다. 그리고 대한문까지 나아갔다.

'함께 걷자'에 이어 진행된 '함께 말하자' 집회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투쟁은 나의 투쟁"이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두 달을 넘게 공권력에 의한 침탈과 만행에 맞서 먼저 가신 스물 두 분을 가슴에 묻고 이곳을 사수해 왔다. 여러분들의 함께 하는 마음을 믿는다. 연대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며 환영하였고, 영리병원과 KTX 민영화 등 사유화 반대 투쟁에 앞장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쌍용차 투쟁이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며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함께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를 밝혔다. 더불어 재능, 포레시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성 등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무대에 올라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총파업 투쟁 성사하여 이번 기회에 투쟁사업장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자!

총파업 투쟁단 출범식

저녁에는 총파업 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각 지역에서 동지들이 모여 그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공식 출범을 맞아 더 힘찬 총파업 조직화로 전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총파업 투쟁단은 출범식을 통해 (1) '2012년 총파업 결의 노동자 선언 운동'을 전개하여 아래로부터 총파업의 결의와 행동을 모아갈 것과 (2) 7/7(토)~7/14(토)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전국순회 투쟁에 적극 함께 할 것, (3) 전국,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복무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득중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대한문과 평택에서, 그리고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셨다. 현장과 거리에서 펼쳐지는 총파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의로 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동지의 결의를 받아 더 큰 투쟁, 총파업 투쟁으로 전진하자!

■ 6/28(목) 경고파업에 참여하자!

민주노총이 6/28 대규모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산별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5시 여의도로 집결하여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파업은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할 때 완성된다. 상급단체의 선언과 확대간부 수준의 참여로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6/28 경고파업에 적극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진짜 총파업을 만들어내자!

■ 6/29(금) 화성 장안공단 투쟁에 함께 하자!

금속노조 경기지부 공동투쟁단이 6/29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 장안공단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화성 장안공단에는 포레시아, 한국3M, 파카한일유압 등 투쟁사업장이 많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현장 동지들의 연대는 절실하다. 현장 동지들이 노동자 탄압하는 투쟁사업장 자본의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투쟁하면, 투쟁사업장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그동안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선 만큼, 이제 우리가 연대에 나설 때이다.